광주시, 구글과 AI 융합인재 양성

올 1월 美 방문때 '인공지능 협업모델' 후속 조치…24일 교육 설명회
'구글 클라우드 AI 캠프 for 전남대' 5월 개강…28일까지 교육생 모집

광주시와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 전남대학교가 공동으로 인공지능(AI) 산업을 이끌어갈 'AI 융합인재 양성'에 나선다.

광주시는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 전남대와 함께 운영하는 인공지능 교육프로그램인 '구글 클라우드 AI 캠프 for 전남대'의 5월 개강을 앞두고 오는 28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1월 구글 클라우드와 협의한 '인공지능 협업모델' 후속 조치로,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와 함께 추진하는 첫 협력사업이다. 당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정성택 전남대학교 총장 등은 실리콘밸리 구글 본사를 방문하고 구글 클라우드에 협력모델 개발을 제안했다. 이후 수차례 실무 논의를 거쳐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분야에서 첫 번째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광주시는 이번 인재양성 협력사업을 시작으로, 인공지능과 관련한 여러 분야에서 구글 클라우드와 협력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구글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이해 및 빅쿼리(BigQuery) 전문가 과정'이며, 구글 클라우드 공식 교육파트너사인 ㈜아이코어이앤씨가 맡는다.

교육과정은 온라인 학습(6주), 오프라인 기술교육(9주), 피칭 및 네트워킹(2일) 등으로 구성됐으며, 5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16주간 진행된다. 교육 후 구글 클라우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팀 프로젝트 발표 및 성과공유회를 통해 우수 교육생을 선발·시상하고, 구글 클라우드 및 구글 클라우드 파트너사와 함께하는 잡페어(Job Fair)와 취업특강을 개최하는 등 학생의 진로 및 취업 상담까지 패키지로 이뤄진다.

교육 대상은 기초수준의 코딩역량을 보유한 전남대학교 재학생 30명이며, 오는 28일까지 전남대 LINC3.0사업단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4월 24일 교육 설명회를 열어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구글 클라우드의 특강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대학교 LINC3.0사업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남대학교 LINC 사업단(062-530-0364, 0358)로 하면 된다.

김용승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지역 대학생들에게 글로벌 비즈니스를 이끄는 혁신의 핵심인 클라우드 컴퓨팅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프로젝트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면서 "인재양성을 시작으로 구글 클라우드와 다양한 분야의 협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체험으로 시각장애인 마음 이해하기 13일 광주 북구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열린 장애와 편견 차별 의식을 해소를 위한 어린이 장애 이해 교실에 참가한 한솔유치원 원생들이 친구들과 장애 체험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광주 지역아동센터' 전수 조사

304곳으로 전국 두번째…현장 조사단, 6월까지 아동 현황 등 점검

광주시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운영 상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광주 지역아동센터는 모두 304곳으로 특광역시 가운데 서울(427개) 다음으로 많다.

아동 1000명당 센터 수는 1.35개로 대전(0.66개), 대구(0.62개), 부산(0.5개), 인천(0.42개), 서울(0.38개), 울산(0.32개)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어린이집은 2020년 1072개, 2021년 1002개, 2022년 940개, 올해 현재 892개로 급감하고 있지만 지역아동센터는 2021년 1곳이 늘었다가 지난해 다시 줄어들었을 뿐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용 아동 수는 모두 7420명으로 추정되는데 19명 이하(109곳), 29명 이하(126개), 30명 이상(69개) 등 정원에 따라 적게는 660여만원, 많게는 960여만원이 센터마다 월 운영비(인건비 포함)로 지원되고 있다.

급식비, 인건비 등으로 올해 512억 7000여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개선·발전 방안을 마련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지난 10일부터 6월 말까지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공무원과 민간인 2인 1조로 구성된 30개 조 현장 조사단이 센터를 방문해 신고 정원 대비 이용 아동 현황, 출결 상황, 종사자 복무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담양·영광 2곳 중소기업 특별지원 연장

에코하이테크·대마산단 2025년 3월까지…세제 지원 등

담양 에코하이테크 일반산단, 영광 대마전기자동차 일반산단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2년 연장 지정을 받았다.

전남도는 13일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불황 장기화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계약·세제·자금·판로 및 기술개발 등 지원으로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담양 에코하이테크산단은 2018년 3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받아 분양률이 63%에서 100%로 증가했다.

입주 기업도 32개에서 109개 사로 증가하는 등 외형적으로 성장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불황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됐다.

영광 대마전기자동차산단 역시 2018년 3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받아 분양률이 46.5%에서 78.8%로 증가했으나 밀집지역 매출액 또는 카드 매출액이 1년 전보다 24.7% 감소했다. 또 이(e)-모빌리티 활성화 등을 위해 지정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두 산단의 현장실사를 통해 이러한 실정을 파악, 평가에 반영해 지정 연장을 결정했다.

현재 전국 20개 산단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전남에는 전국의 45%인 9개 산단이 지정받아 기업이 수의계약, 조세 감면 등 지원과 중기부 지원사업 평가 가점 및 조건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연장으로 입주 기업이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며 "담양 에코하이테크산단과 영광 대마전기자동차산단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친환경 산단과 이-모빌리티 특화산단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은 경영 위기에 있는 산업단지나 중소기업 밀집 지역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산업 침체, 기업 이전·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의 경영 환경 악화 정도를 알 수 있는 경기·산업지표 등을 평가해 지정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도의회, 인구감소지역 선정 개선 건의안 채택

임시회 본회의…"감소세 높은 전남 일부 지자체 배제돼"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는 13일 제 370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를 열고, 중앙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시행 관련한 개선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도의회는 이날 건의안에서 "행정안전부의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관심 지역 선정은 객관성과 공정성, 합리성에 위배된다"며 "수도권과 광역시 자치구가 인구감소지역과 관심 지역으로 지정되고 인구문제가 심각한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행안부가 수년전의 데이터를 근거로 89개 지역만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들 지역만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배정, 중앙정부 부처들의 주요 사업을 89개 지자체에만 우선 집중토록 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인구감소 위기가 가장 심각한 전남지역이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가장 많이 배정받고 있지만, 목포·여수시가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시행과 관련해 인구 위기가 더 심각한 지자체를 더 배려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도 자료를 내고 "전남도의회의 이번 건의안과 관련해 중앙당과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개선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영록 지사, 광역단체장 지지 9개월 연속 1위

리얼미터 3월 긍정평가 67.1%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국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지지도 평가에서 9개월 연속 1위를 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3월 김영록 전남지사의 도정 운영 긍정 평가는 67.1%로 가장 높았다.

김 지사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취임 때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으로 전국 광역단체장 17명 가운데 지지율 선두를 유지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63.0%로 2위, 김동연 경기지사가 58.4%로 3위를 각각 기록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44.9%로 15위를 나타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 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1%이다.

표본오차는 광역단체별로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